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0.04., 2019.03.15>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등 선진사례 연수						
출장동기 및 내용	• 주민과 공존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견학 및 관련 정보 수집 • 폐기물 소각로 등 기피시설의 추진 및 갈등 조정 사례 조사 • 민관 협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도시 및 마을 조성 성공 사례 조사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우수사례 등 해외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출장기간	2023. 6. 19. ~ 6. 28.(8박 10일간)						
출 장 국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계		10명			금 액	부담기관
	순천시의회	시의원	최병배	남	-	5,229,530	순천시 3,200,000 자부담 2,029,530
	"	시의원	양동진	남	-	5,229,530	순천시 3,200,000 자부담 2,029,530
	"	시의원	서선란	여	-	5,229,530	순천시 3,200,000 자부담 2,029,530
	"	시의원	강형구	남	-	5,229,530	순천시 3,200,000 자부담 2,029,530
	"	시의원	이향기	남	-	5,229,530	순천시 3,200,000 자부담 2,029,530
	"	시의원	우성원	남	-	5,229,530	순천시 3,200,000 자부담 2,029,530
	"	시의원	오행숙	여	-	5,229,530	순천시 3,200,000 자부담 2,029,530
	"	시의원	이복남	여	-	5,229,530	순천시 3,200,000 자부담 2,029,530
	"	전문위원	이태문	남	-	5,229,530	순천시 5,229,530
	"	주무관	송병권	남	-	5,229,530	순천시 5,229,530

※ 천단위 미만 절사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19 (월)	순천	오스트리아 (비엔나)	-	- 출발(순천⇒인천공항) - 출국(인천공항⇒오스트리아 비엔나)	-
6/20 (화)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	- 슈피텔라우 소각장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환경적 소각장 - 슈테판 광장 및 케른트너 거리 견학 - 오스트리아 대표 광장	슈피텔라우 소각장 홍보팀 홍보 담당자 Martina Krobath 현지 코디네이터
6/21 (수)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 (판도로프)	가소메터시티 사무국	- 가소메터시티 - 폐쇄된 가스저장소의 도시재생 사례 - 혐오시설의 복합문화공간 활용	가소메터시티 사무국 대표 : Mag. Andreas Pöschek
6/22 (목)	오스트리아 (비엔나)	체코 (크로 메르지시)	-	- 크로메르지시 정원 - 체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1665년 에 조성된 정원	현지 코디네이터
6/23 (금)	체코 (크로 메리츠)	체코 (프라하)	프라하 하수처리장	- 프라하 하수처리장 - 체코 최대규모의 하수처리장 1,300만톤/일 하수 처리	현지 코디네이터
6/24 (토)	체코 (프라하)	체코 (프라하)	프라하시 도시계획과	- 프라하 트램 및 자전거 연계 교통 시스템 체험 - 버스정류장-자전거 주차장 연계 - 프라하 아이즈 도시재생 사례지 방문 - 건축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현지 코디네이터 프라하시 도시계획과 과장, 이트카 크베틀로바(Jitka Cvetlerová)
6/25 (일)	체코 (프라하)	독일 (플젠, 뉘른베르크)	-	- 플젠 필스너 우르켈 맥주공장 견학 - 최초 맥주 생산도시 - 마르크트 광장 -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계절마다 다양한 축제 개최)	맥주공장 현지해설사 현지 코디네이터
6/26 (월)	독일 (뉘른베르크)	독일 (밤베르크, 하이델베르크, 만하임)	하이델베르크 패시브하우스 협회 만하임 관광정보부	- 하이델베르크 친환경 패시브하우스 주택마을 방문 - 모든 건물을 패시브하우스로 건축 및 설계, 우수 및 중수 활용으로 친환경 수로 구축 - 독일연방 정원박람회(BUGA 2023) - 세계 3대 정원박람회로 200년의 역사를 지니며 기후보호를 테마로 한 박람회	하이델베르크 패시브하우스 협회 담당자 : Dr. Berthold Kaufmann 만하임 관광정보부(Touris- mus Stadt Mannheim GmbH) BUGA 2023 투어 가이드 신청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27 (화)	독일 (비스바덴)	독일 (프랑크 푸르트)	비스바덴 하수처리장	■ 프랑크푸르트 뢰머광장 - 광장 조성과 문화 및 광장 주변의 상업지역 활성화 선진사례 ■ 비스바덴 중앙하수처리장 - 하수 슬러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 - 거주단지 내 위치한 처리장 ■ 출국(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인천공항)	비스바덴 하수처리장 (elw) 위탁업체 KLAERWERK BIEBRICH 홍보팀
6/28 (수)	인천	순천	-	■ 이동(인천공항⇒순천)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순천시의회	시의원	최병배	연수 일정 총괄
2	"	시의원	양동진	결과보고서 작성 등
3	"	시의원	서선란	환경시설(소각장) 선진사례 자료 조사 등
4	"	시의원	강형구	환경시설(소각장) 선진사례 자료 조사 등
5	"	시의원	이향기	하수처리시설 선진사례 자료 조사 등
6	"	시의원	우성원	하수처리시설 선진사례 자료 조사 등
7	"	시의원	오행숙	도시재생 및 정원 사후활용 선진사례 자료 조사 등
8	"	시의원	이복남	도시재생 및 정원 사후활용 선진사례 자료 조사 등
9	"	전문위원	이태문	연수계획서 및 결과보고 작성 지원 등
10	"	주무관	송병권	연수계획서 및 결과보고 작성 지원, 현장 사진 촬영 및 국외여행 앨범 작성 지원 등

3. 출장경비 ※ 현재 환율 1\$= 1,366.00원(2023. 5. 1. 기준)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52,295,300	4,098,000	7,649,600	12,005,700	28,442,000	100,000	자부담 16,236,240
최병배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자부담 2,029,530
양동진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자부담 2,029,530
서선란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자부담 2,029,530
강형구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자부담 2,029,530
이향기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자부담 2,029,530
우성원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자부담 2,029,530
오행숙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자부담 2,029,530
이복남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자부담 2,029,530
이태문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송병권	5,229,530	409,800	764,960	1,200,570	2,844,200	10,000	

경비상세 내역

소요예산 : 총 금52,295,300원(금오천이백이십구만오천삼백원)

○ 【지방자치단체 의원, 직원】 ₩5,229,530원×10명= ₩52,295,300원

구분	산출내역			비고
	내역	금액		
		원화	달러	
계		5,229,530	\$1,738.90	
운임	항공료	2,844,200	실비	- 국제선 : 인천, 오스트리아, 독일
일비	- 독일 : \$ 30 × 3일 =	122,940	\$90.00	1 페이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별표 1] - 여비 등급 : 제2호 국가 및 도시 등급 - 독일 및 오스트리아, 나등급 - 체코, 다등급
	- 오스트리아 : \$ 30 × 5일 =	204,900	\$150.00	
	- 체코 : \$ 30 × 2일 =	81,960	\$60.00	
	소계	409,800	\$300.00	
식비	- 독일 : \$ 59 × 3일 =	241,782	\$177.00	
	- 오스트리아 : \$ 59 × 5일 =	402,970	\$295.00	
	- 체코 : \$ 44 × 2일 =	120,208	\$88.00	
	소계	764,960	\$560.00	
숙박비	- 독일 : \$ 116.45 × 2일 =	318,141	\$232.90	
	- 오스트리아 : \$ 116.45 × 4일	636,283	\$465.80	
	- 체코 : \$ 90.1 × 2일 =	246,153	\$180.20	
	소계	1,200,577	\$878.90	
준비금	여행자보험 및 비자발급비용	10,000		여행자보험 : 단체

환율 (기준일 2023. 5. 1.)		1 \$ =	₩ 1,366				
나라명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85%)	숙박비	체류일	숙박일
독일	나	\$30.00	\$59.00	\$116.45	\$137.00	3	2
		40,980	80,594	159,071	187,142		
오스트리아	나	\$30.00	\$59.00	\$116.45	\$137.00	5	4
		40,980	80,594	159,071	187,142		
체코	다	\$30.00	\$44.00	\$90.10	\$106.00	2	2
		40,980	60,104	123,077	144,796		

통화선택 USD:달러(미국) ▼

일자선택 2023-05-01  연월일 8자리로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예) 20160101

고시회차 최초 ● 최종 특정회차 고시회차 

조회

 다운로드  다운로드 인쇄하기

기준일 : 2023년 04월 28일 고시회차 : 500회차 고시시간 : 23시 58분 10초

조회시각 : 2023년 05월 03일 09시 52분 55초

통화	현찰				송금		T/C 사실때	외화 수표 파실때	매매 기준율	환가 료를	미화 환산율
	사실 때		파실 때		보낼 때	받을 때					
	환율	Spread	환율	Spread							
미국 USD	1,366.50	1.75	1,319.50	1.75	1,356.10	1,329.90	0.00	1,327.95	1,343.00	6.84321	1.0000

4. 출장효과

- 해외의 선진사례[환경시설(소각장), 도시재생, 공원 및 정원 사후활용] 비교 견학 및 탐방을 통해 우리시 시정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 갈등 해소 및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무국외 출장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5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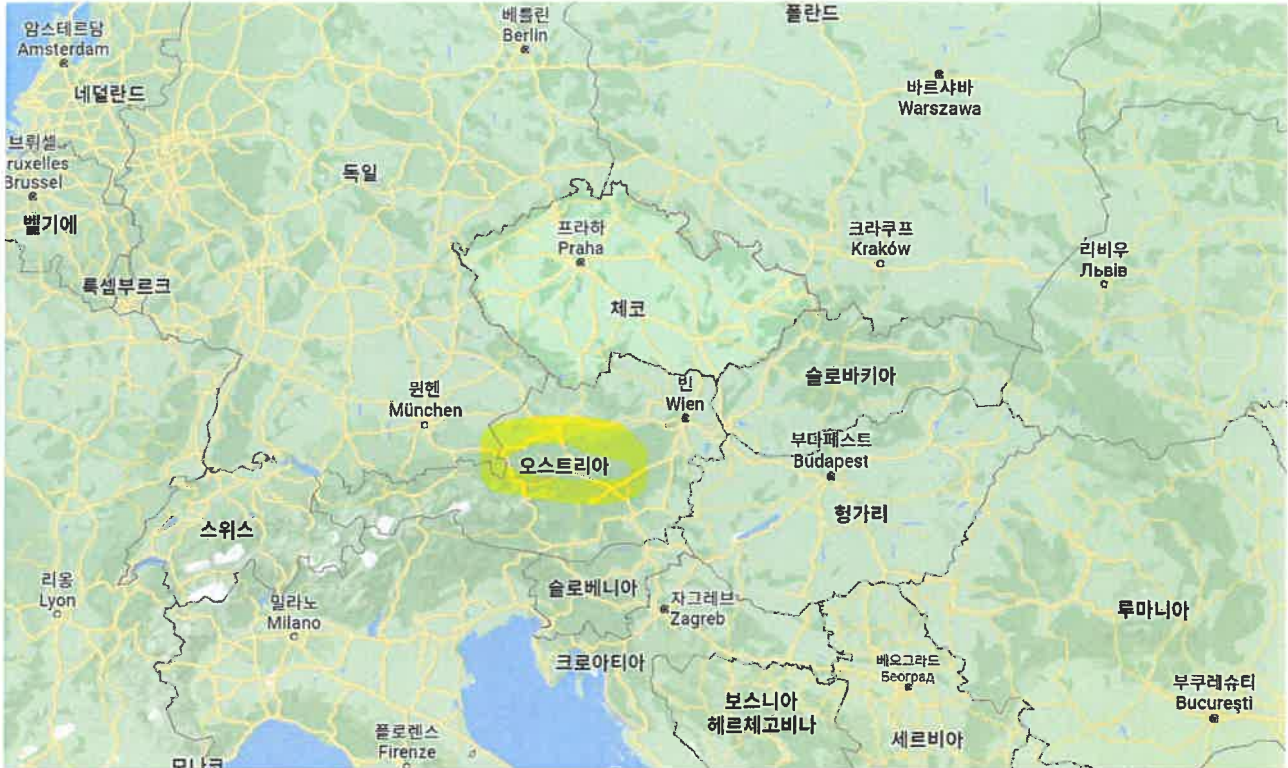
위 제출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 병 배 (인)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연수국가 현황

□ 오스트리아

○ 기본현황



위	치	유럽 중부,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의 북쪽
경 위	도	동경 13° 20', 북위 47° 20'
면 적 (km ²)		83,871
시 간 대		CET (UTC+01) Summer: CEST (UTC+02)
수 도		빈(Vienna)
종 족 구 성		오스트리아인(91.1%), 유고슬라비아인(4%), 터키인(1.6%), 독일인(0.9%)
공 용 어		독일어
종 교		가톨릭 64%, 개신교 5%, 이슬람교 8%
건 국 일		1156년 9월 17일
국 가 원 수		알렉산더 판데어벨렌(1944년생, 2022년 취임, 6년 임기)
정 체		연방공화제
통 화		유로화(Euro)
인 구 (명)		895만 8,960명 세계99위
평 균 수 명 (세)		84.1(2020년)
1인당명목 GDP(\$)		53,859(2021년)

○ 행정구역



- 유럽 대륙 중앙에 있는 내륙국으로, 13세기 말부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1815년 독일연방,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1918년 공화국, 1938년 독일에 합방, 1945년 소련 점령을 거쳐, 1955년 독립주권을 회복했다.
-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이다. 북쪽으로 독일·체코, 동쪽으로 헝가리·슬로바키아, 남쪽으로 슬로베니아·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접한다. 유럽의 6개 영세중립국 중 하나이며, 헌법에 영속적 중립성을 명시했다. '동쪽 제국(eastern empire)'이라는 뜻의 국명은 독일어(語)로 'Österreich'라고 하며, 'Old German Ostarrichi'에서 유래했다. 행정구역은 9개주(Bundesland)로 되어 있다.

○ 정치제도

- 오스트리아는 연방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하원은 국민의회(Nationalrat)라 불리고 4년 임기의 의원 183명은 비례 대표제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다. 그에 반해 상원으로서 연방의회(Bundesrat)가 있고 연방의원 중에서 64명은 연방주의 주 의회에서 파견된다.
- 법률은 국민의회에 의해 결정된다. 그 효력 발생은 연방의회에 의해 지연될 수는 있으나 방해받지는 않는다. 일상 정치의 수행은 연방 총리의 과제이고, 국가원수는 대표 기능만을 수행한다. 1998년 7월 8일 국민당의 토마스 클레스틸(Thomas Klestil)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연방정부는 총리, 부총리뿐 아니라, 14명의 연방장관으로 함께 구성된다. 현재 총리는 국민당의 볼프강 슈에셀(Wolfgang Schuessel)이다. 연방 주는 고유의 의회와 주 정부를 운영하는데, 그때마다 의장이 주관을 한다. 연방과 주의 관할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교육제도

- 19세기 무렵 최저 8년 간의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62년에는 9년간으로 연장되었다. 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함께 있으나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국가가 관리·통제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등록금, 교과서 등은 무료이다. 취학연령은 6세이며 대학진학 희망자는 우선 4년제 초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뒤 9년제 중학 과정을 마치고 대학 입학 자격시험이라는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 종합대학으로는 독일어권(獨逸語圈)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빈대학교(1365), 그라츠대학교(1585), 인스브루크대학교(1677)와 1964~1966년에 신설된 잘츠부르크대학교 등 4개가 있다. 단과대학은 공대, 광산대, 수의대, 경상대, 미대, 음대 등 14개 대학이 있다. 그 밖에 성인교육을 위한 시설도 많이 있으며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로 구성되는 국제 하계학교(夏季學校)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어 국제적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15세 이상 문맹률은 2%이다.

○ 문화예술

- 음악의 도시라고 부르는 빈을 중심으로 활약한 음악가로는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 요제프 하이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등의 고전파를 비롯하여 루드비히 베토벤, 프란츠 슈베르트, 요하네스 브람스, 구스타프 말러, 아르놀트 쇤베르크, 안톤 폰 베베른 등 다채로운 인물 구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속무곡 렌틀러를 모체로 하여 도시풍의 '빈 왈츠'로 완성한 요한 슈트라우스도 특기할 만한 작곡가이다.
- 스포츠면에서는 특히 기후가 겨울 스포츠에 적합하여 인스브루크에서 동계 올림픽(제12회)과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되었다. 스키·스케이트는 폭넓게 즐기는 스포츠이며 곳곳에 인공 및 천연 스케이트링크가 설치되어 있다. 그밖에 축구도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빈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설비를 갖춘 시립체육관이 건설되었다.

○ 복지정책

- 오스트리아는 서부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 제도가 발전해 왔으며 사회복지관계의 지출이 국가재정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1920년대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어 주 40시간의 임금, 유급 휴가, 소년, 여성을 위한 노동 시간의 배려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건강 재해 실업 연금의 혜택을 받으며 신체장애자와 전쟁희생자를 위한 배려, 아동 양육을 위한 가족 수당 지급, 연금 생활자를 위한 숙소 제공, 긴급아동보호소와 보건 위생센터, 및 온천 요양소를 설치하여 국가가 지원한다.

□ 체코

○ 기본현황



위	치	유럽 중부
경	위	도
면	적 (km ²)	78,867
시	간	대
수	도	프라하
종	족	구
성		체코인(64.3%), 모라비아인(5%), 슬로바키아인(1.4%), 기타(1.8%)
공	용	어
		체코어
종		교
		무교(34.5%), 가톨릭(10.4%), 개신교(1.1%), 기타(54%)
건	국	일
		1993년 1월 1일
국	가	원
		수 페트르 파벨(1961년생, 2023년 취임)
정		체
		공화제
통		화
		코루나(Koruna)
인	구 (명)	1,049만 5,295명 세계 88위(2023)
평	균	수
명	(세)	79.3(2020년)
1	인	당
GDP(\$)		26,410(2021년)

○ 행정구역



-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로부터 독립하였다.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이 인위적으로 합쳐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0년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 고치고 1993년 1월 1일 평화적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2개 공화국으로 서로 분리·독립하여 오늘에 이른다. 정식명칭은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이다. 북쪽으로 독일·폴란드, 서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한다.
-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유럽공산주의 국가 중 최고의 생활수준과 높은 문화를 유지한 공업국가이었다.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의 민족적·언어적·문화적 이질감과 경제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 슬로바키아공화국과 연방제를 구성하였다가 1993년에 평화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체코공화국이 되었다. 행정구역은 13개주(kraj), 1개 특별시(hlavni mesto)로 되어 있다.

○ 정치형태

- 체코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이며 1992년 12월 16일 채택된 헌법에 기초한다. 헌법상 국가수반은 대통령, 주권의 최고대표기관은 상·하원으로 구성된 의회, 최고행정기관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며, 최고사법기관은 대법원이다. 정당은 다당제가 인정되고 있다.
-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다.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의 하원 또는 상원의원의 추천이 필요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상·하 의원 총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총리 또는 기타 정부각료의 연서 없이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각료의 임명과 해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사의 임명, 법률거부권 등과, 연서가 필요한 권한인 판사 임명, 사면 및 총선 공고 등이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제조약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 교육제도

- 체코의 교육은 취학 전 교육(3세~6세), 기초학교(6세~14세), 중등교육(14세~18세), 고등교육(18세~23세)으로 나누어진다. 취학 전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학부모가 교육비의 30%를 부담한다. 기초학교는 초등 6년과 초기 중등 3년의 9년제로, 6세부터 이후 9년 간의 기초 학교 교육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한다. 기초학교단계는 1~5학년

까지의 전기 단계와 6~9학년까지의 후기 단계로 나뉜다.

- 국공립은 무상교육이며, 사립은 유상교육이다. 자유화가 된 1990년에 교육법이 수정되어 4년 이상 교육 기간의 김나지움(gymnasium)이 설립되었다. 김나지움에는 기초학교의 전기 단계 이수 후에 전학이 가능하다. 이는 1948년 당시의 제도가 부활된 것이다. 김나지움으로 전학하는 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기준 아동의 11%에 달한다.

○ 문화예술

- 체코의 문화는 독특하고 그 역사가 길다. 1348년에 설립된 프라하대학교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프라하대학교의 설립을 계기로 당시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특히 요하네스 후스에 의해 다수의 문학 작품이 체코어(語)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 체코에서는 축구와 스키가 국민스포츠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아이스하키와 테니스도 즐겨 한다. 축구는 유명 스포츠클럽으로 프라하에 스파르타와 보헤미안스(Bohemians) 등이 유명하며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무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6년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독일에 아깝게 2—1로 패해 준우승에 머문 강호이며 유로2000(유럽 선수권대회)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다. 월드컵 본선에 8차례 출전해서 두 차례나 준우승(1934년, 1962년)을 했고 8강에도 두 차례(1938년, 1990년) 올랐다. 체코에는 산이 많고 겨울이 길어 스키에 적합하다. 또한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 체코가 1위를 차지하여 체코의 아이스하키 실력은 세계 최고이다.

○ 복지정책

-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실시되어왔다. 직업과 계층에 따라 다른 종류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연금 · 건강보험 · 농민사회보장 등이 기본적인데, 종래에는 연금과 농민 사회보장은 국고부담이고, 모든 노동자와 피고용자의 보험혜택과 진료 및 치료가 무료였으나, 1993년 1월부터는 모든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보험출연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들의 보건 · 위생 상태는 좋은 편이다. 이러한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낳는 주요인이 되고 유럽연합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세제 및 사회복지 부문의 개혁(복지지원, 의료, 연금)을 추진 중이다.

□ 독일

○ 기본현황



위	치	유럽중부
경 위	도	동경 9° 00', 북위 51° 00'
면 적 (㎢)		357,022
시 간 대		CET (UTC+1) Summer: CEST (UTC+2)
수 도		베를린
종 족 구 성		게르만족(91.5%), 터키인(2.4%)
공 용 어		독일어
종 교		개신교 30.8%, 구교 31.5%, 이슬람교 4%
건 국 일		1949년 5월 23일 (1990.10.3 동서독 통일)
국 가 원 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1956년생, 2017년 취임)
정 체		연방공화제
통 화		유로화(Euro)
인 구 (명)		8,329만 4,633명 세계19위(2023)
평 균 수 명 (세)		81.7(2023년)
1 인 당 GDP (\$)		5만 801.79달러 세계17위(2021)

○ 행정구역



-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 여러 개의 독립국이 1871년 프로이센 · 프랑스전쟁을 거쳐 독일제국으로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나뉘었다가 1990년 통일되었다.
-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고, 영어로는 Germany이다. 북쪽으로 북해 · 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 · 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 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 · 룩셈부르크 · 벨기에 · 네덜란드와 접한다.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산맥 · 라인강 · 다뉴브강 · 슈바르츠발트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6개주(Land:구동독지역 5개주)로 되어 있다.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창설국이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 정치형태

- 독일은 본래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고 수많은 영주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다. 독일의 연방주의는 대외적 통일성과 대내적 다양성이 결합된 형태로, 연방의 각 주는 자체 국가권력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수정이 불가능한 헌법을 근간으로 한다.
- 독일의 연방대통령은 독일의 연방대통령은 독일 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이런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 및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의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총리 및 연방각료로 구성된다. 연방총리는 연방정부 내에서, 또 연방각료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연방총리만이 내각 구성권을 보유한다. 연방정부는 총리가 정책의 기본노선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원칙(Kanzlerprinzip), 모든 법안이나 주요정책은 내각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Kabinetprinzip), 각부 장관들은 총리의 기본정책 노선과 내각의 결정 테두리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원칙(Ressortprinzip), 이 세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외교정책, 국제관계, 국방정책, 화폐정책, 교통 분야에 대한 연방 고유 업무 외에 경제, 재무, 내무, 사회 복지, 환경 분야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된 이래 연방에 편입된 구 동독지역 5개 주를 포함한 16개 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자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주

의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당이 주정부를 구성한다. 주 정부는 주 의회가 선출한 주 총리와 주 총리가 임명한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며, 각 주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처로 구성된다.

○ 교육제도

- 유치원은 제도권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니고 있으나 3~6세 취학전 아동의 75%가 유치원을 다닌다는 점에서 제도권교육이나 다름없다. 의무교육은 6세부터 시작되며 주에 따라 9년 또는 10년이 소요된다. 초등교육은 4년 과정이며, 이에 이어지는 중등교육은 3가지로 분류된다. 즉 학문연마 정도가 덜한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하우프트슐레, 보통수준인 레알슐레, 그리고 대학입학을 목표로 교육하는 김나지움 등이다. 몇몇 연방주는 이 3가지 형태가 병존하는 종합학교(게잡트슐레)를 채택하고 있다.

○ 문화예술

- 독일은 세계 음악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세계의 근현대 음악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7~19세기 동안 바르크 음악, 고전파 음악, 낭만파 음악을 거쳐오면서 걸출한 음악가를 배출해 왔다. 바로크 음악에는 바흐와 헨델, 고전파 음악에는 하이든, 모짜르트, 베토벤, 낭만파 음악에는 슈베르트, 브람스, 멘델스존, 바그너 등이 있다.
- 독일 전체 인구 가운데 25%는 8만 여개에 달하는 체육단체 중 어느 한 곳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각종 스포츠가 일상화되어 있다. 전통적

으로 체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없고 자율성을 보장해왔다. 전국에는 5만 개의 운동장, 3만 개의 실내체육관, 7,700개의 수영장 등이 분포되어 있어 체육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독일은 세계적인 스포츠강국으로, 특히 축구는 매우 인기 있는 종목이며 전통의 프로 축구리그 분데스리가가 운용된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는 정식 축구 클럽의 회원이 530만 명에 달하며 이 숫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체조클럽에도 430만 명이 소속되어 있다. 테니스 수준도 매우 높는데, 보리스 베커와 슈테피 그라프 등 세계적인 스타가 배출되었다. 그밖에 복싱, 사격, 수영도 인기 종목이며,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출신의 선수들이 육상 등에서 활약하였다.

○ 복지정책

-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에 힘입어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보장제도의 핵심이다.
-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독일은 매년 총 예산의 약 40%를 할애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특정 직종에서 월 소득이 일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내는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의료보험(인구의 약 90% 가입)에는 건강촉진 및 질병예방,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임신 및 출산, 환자 수술에 드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수발보험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중증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995년 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다. 수발 및 수발에 드는 전문 요원에 대한 모든 경비를 보험이 담당한다.

- 실업보험은 직업 상담 및 소개, 재교육, 고용창출 등 적극적인 고용촉진 기능과 더불어 실업수당이나 실업 구제금 지급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한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나 직업병, 출퇴근 및 등하교 길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산재 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고용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에는 각종 보험제도 이외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자녀수당과 육아비, 주택보조금, 연방교육진흥비, 생활보호 등이 있다.

■ 기관 등 방문 주요내용

< 오 스 트 리 아 >

○ 슈피텔라우 소각장

■ 일 시 : 2023. 6. 20.(화)

■ 소 재 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

■ 면담대상 : 홍보팀 홍보 담당자 Martina Kroboth

■ 견학내용

- 소각시설 현황(설치시설, 소각공정, 주민편익시설, 환경피해 방지시설),
- 폐열 활용 사업 및 부대 사업 현황
- 주민 민원 발생사항 및 해소 관련 의견 청취 등
- 슈피텔라우 소각장의 연간 방문객 및 시민제공 프로그램 견학

■ 현 황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빈에 혐오를 넘어 사랑을 받는 시설로 거듭난 소각장이 존재한다. 초창기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가 많았지만 정치인들은 주민들과 소통에 소통을 거듭했고, 약속을 지켜 예술품으로 완성시켰다.
-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훈데르트바서가 전체를 디자인한 예술 소각장이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를 뽐내는 외관도 물론 슈피텔라우 소각장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지만, 더 놀라운건 바로 '친환경'적인 부분이다.

- 훈데르트바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배기가스 정화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분진이나 유해 가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지어 쓰레기를 태울때 발생하는 열로 시민들의 난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12만 메가와트의 전기와 50만 메가와트의 지역난방은 현재 비엔나 시내의 6만여 가구에 이 소각장의 난방을 공급받고 있다. 게다가 독특한 외관에 쓰인 재료는 모두 재활용품이다.
- 소각장의 존재가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와 함께 시민들에게 에너지원으로 활용,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까지 갖춰져 지금은 비엔나에서 꼭 필요한 요소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소각장에서 뽑는 연기도 필터로 걸러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 하루 평균 250여대의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며 도심의 쓰레기를 옮기고, 주로 고형물을 처리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등도 섞여 있으나 분리하지는 않는다.
- 슈피텔라우 소각장의 운영 및 관리는 빈에너지라는 회사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공기업과 같다. 주로 환경미화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근무하며 이들의 처우는 모두 공무원으로 정년과 소득안정을 보장 받는다.
- 빈에너지회사에 부모와 함께 견학 온 어린이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는데 1초도 기민하지 않고 '청소부'라고 답했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더러운 일을 하는것이 아닌, 도시를 깨끗하게 한다는 자부심과 직업 안정성, 국민들의 존중이 어우러지며 어린이들이 되고 싶은 직업이라고 한다.



○ 비엔나 슈테판 광장

- 일 시 : 2023. 6. 20.(화)
- 소재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안내자 : 현지 코디네이터
- 견학내용 : 광장 조성과 문화, 광장 주변의 상업지역 활성화
- 현황

- 슈테판 광장(Stephansplatz)은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Vienna)의 중심지 중 하나로,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다.

※ 중세 시대 : 슈테판 대성당(St. Stephen's Cathedral) 건설 - 슈테판 광장은 중세 시대부터 중요한 교회인 슈테판 대성당이 건설되면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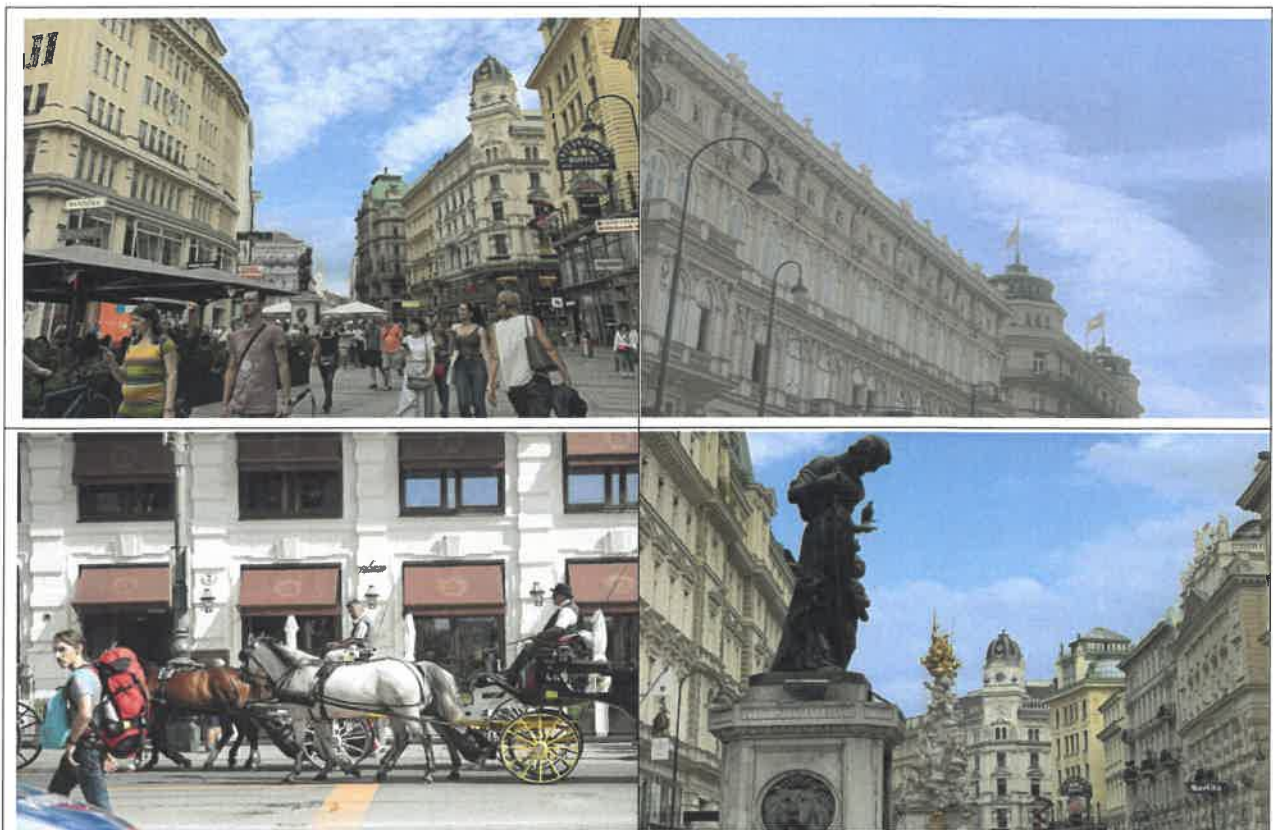
※ 17세기 : 광장의 주변에 상점들이 생겨나기 시작 - 광장 주변에는 상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슈테판 광장은 빈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지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 19세기 : 광장에서 혁명이 일어남 - 1848년 혁명 시기에는 광장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권력과 자유를 둘러싼 충돌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이후 많은 혁명가들이 광장에서 모여 활동했다.

※ 20세기 : 광장의 풍경이 바뀜 - 20세기 초반에는 광장 주변에 많은 건축물이 지어졌으며, 광장은 상업과 관광의 중심으로 변모했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슈테판 대성

당과 주변 건물들이 맹렬한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에는 슈테판 대성당과 주변 건물들이 재건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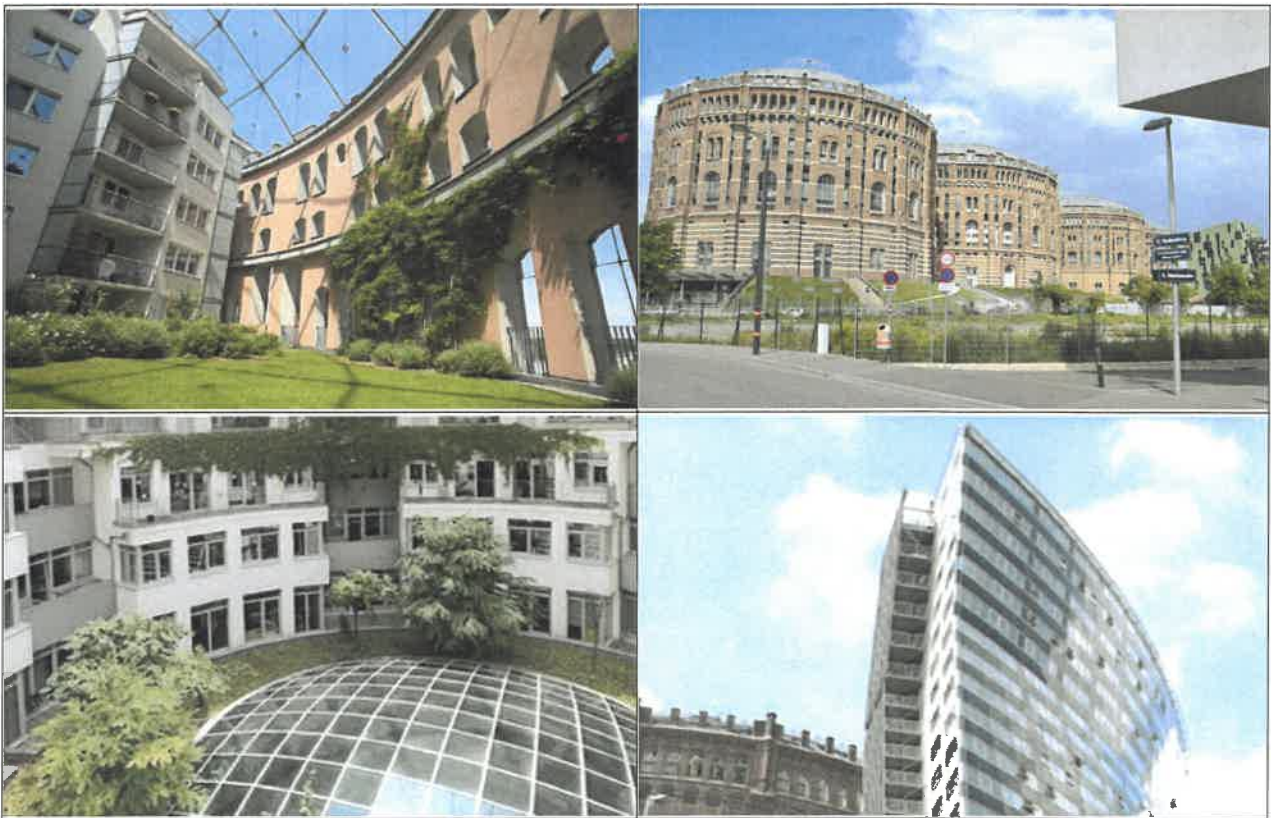
-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Vienna)에 위치한 슈테판대성당 앞에 있는 대형 광장인 슈테판 광장은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의 광장 중 하나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공공 광장 중 하나이며, 주변의 수많은 숙박업소와 레스토랑, 카페, 상점 등이 즐비하다.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 광장이다. 또한 인접해 있는 케른트너 거리는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체험과 예술을 접할 수 있다.



○ 가소메터시티

- 일 시 : 2023. 6. 21.(수)
- 소 재 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안 내 자 : 가소메터시티 사무국 대표 Mag. Andreas Pöschek
- 견학내용 : 가동이 중지된 오래된 가스저장소를 도시계획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로 재탄생시켜, 현재 주거공간을 갖춘 복합기능의 도시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 공급이 중단된 가스저장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도시재생)
- 현 황
 -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하고 있는 가소메터 시티는 1870년 오스트리아 정부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로서 가정과 가로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저장소였다. 1986년 도시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가동이 중지되었고, 내부요소들은 해체되어 외부구조물만 남아 도시의 애향단지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1989년 비엔나의 건축가 만프레트 베도른 교수가 가소메터의 적절한 이용을 제기하고 비엔나시가 유력한 도시 건축가들,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숙고 끝에 경제후원기금과 CA은행의 투자로 마침내 주거공간을 갖춘 복합기능의 도시로 재생되게 되었다.
 - 가소메터에는 약 600여개의 주거용 주택과 학생 기숙사, 유치원, 총 35km의 서가를 갖춘 비엔나시 연방기록보관소와 1000대의 차량을 위한 주차장, 3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음악홀과 무대, 영화관, 사무실, 음식점들과 오락시설을 갖춘 복합기능센터이다. 가소메터 주거단지는 모두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가소메터 A동 장 누벨 : 출발점,

- 빛의 궁전 2. 가소메터 B동 쿵 힘멜블라우 :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며, 옛것과 새것이 공존 3. 가소메터 C동 만프레트 베도른 : 산업유산 재생 4. 가소메터 D동 빌헬름 홀츠바우어 : 정원과 도시자료관
- 가소메터는 저녁에는 영화와 연주회를 만끽하며 식사와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클래식한 산업 건축물의 외형에 내부적으로는 21세기 아방가르드가 공생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뿜내는 도시재생사례로 손꼽힌다.



< 체 코 >

○ 크로메르지시 정원

- 일 시 : 2023. 6. 22.(목)
- 소 재 지 : 체코, 크로메르지시
- 면담대상 : 현지 코디네이터
- 견학내용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7~18세기 정원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배경 등 견학
- 현 황
 - 체코의 크로메르지시에는 포드자메츠 정원과 크베트나 정원 등 두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두 정원 모두 자연과 건축양식이 조화되고 17~18세기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의미있는 정원이다.
 -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서는 성보다 정원이 가치를 더 인정받았다. 포드자메츠 정원 면적은 64ha에 이르며 16세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몇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가꾸어져 오다가 1850년~1855년 당시 유행이던 영국 풍경정원 양식으로 조성되었다.
 - 포드자메츠 정원 곳곳에는 아름다운 호수와, 다리, 화단과 희귀 나무들이 있으며 산책로에서 동물들도 볼 수 있다. 정원입장료는 무료이다.
 - 크베트나 정원은 플라워가든이라고 불린다. 이 정원 1665년~1675년 대주교 카를2세의 명으로 이탈리아 건축가 루케제와 텐칼라에 의해 조성됐으며 1780년대에 보완됐다. 크베트나 정원은 꽃 양탄자 정원과 미로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 로툰다가 있다.

- 또한 이 정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원에서 기하학적인 프랑스 정원
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작품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정원은 “체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으로 극찬하는 자료가 많다.



○ 프라하 하수처리장

- 일 시 : 2023. 6. 23.(금)
- 소 재 지 : 체코, 프라하
- 면담대상 : 현지 코디네이터
- 견학내용 : 세계적인 크기의 하수처리장의 선진사례 견학
- 현 황
 - 프라하 하수처리장은 1967년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 시설은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 혁명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설로 운영되었다. 하나는 Vltava강의 왼쪽에 위치한 하수처리 시설이며,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위치한 하수처리 시설이다.
 - 이 두 시설은 1989년 혁명 이후에 통합되어 현재의 대형 하수처리 시설로 건립되었다.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와 인근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며, 효율적인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깨끗한 물을 생산해내고 있다.
 - 프라하 하수처리장은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 위치한 대형 하수처리 시설로 이 시설은 매일 약 1,30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며, 프라하와 인근 지역의 물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 프라하 하수처리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학적 하수처리 시설 중 하나로,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이용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처리 과정에서는 다양한 미생물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유기물과 질산염, 인산염 등을 제거한다. 그 후에는 공기와 물을 이용하여 처리된 물을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물로 만들어주는 공기 산화 과정을 거쳐 물을 정화한다.

- 이렇게 처리된 물은 프라하와 인근 지역의 강과 호수로 배출되며, 이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시설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와도 연결되어 있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프라하 아이즈 도시재생(강변 도시재생) 사례지 방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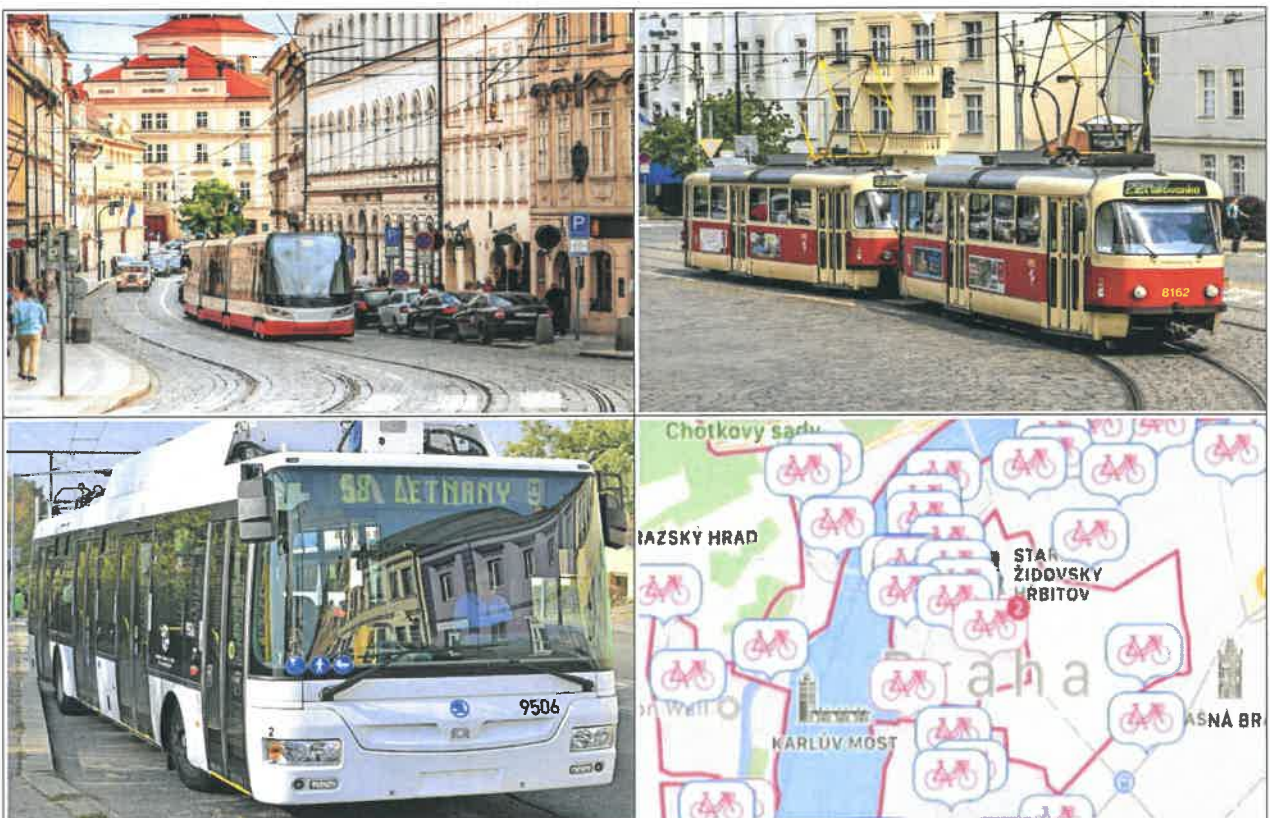
- 일 시 : 2023. 6. 24.(토)
- 소 재 지 : 체코, 프라하
- 면담대상 : 현지 코디네이터
- 견학내용 : 재생에너지 확충,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등 에너지 혁신
선진사례 연수
- 현 황
 - 2021.5월 ' 2030 프라하 기후계획 ' 발표, 2022년부터 본격 도전, 체코 프라하는 과거 화려하던 시절 유럽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시,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넘쳐나는 도시,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문화가 조화를 이룬 도시, 서양 건축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채로운 건축물로 걷기만 해도 즐거운 도시, 이 모두가 프라하에 흔히 붙는 수식어이다.
 - 이처럼 찬란한 과거 유산의 프라하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 바로 동유럽에서 손꼽히는 공업도시라는 점이다. 프라하는 1000년 동안 동유럽과 중부 유럽을 잇는 중심 도시였다. 16세기 부터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주요 세 도시 중 하나로서 19세기에 이르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최대의 공업 도시로 번성했다. 이러한 유산은 현대에도 이어져서 프라하는 유럽의 혁신도시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다양한 분야의 융합 산업이 발전했다. 이처럼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 체코는 동유럽의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역사만큼이나 탄소 배출량도 많은 국가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체코의 전기 중 60%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했다. 이 때문에 체코는

EU 회원국 중에서도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 부담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였다.

- 이전에도 프라하는 시 면적의 1/5은 200개가 넘는 공원과 녹지로 채워져 있을 만큼 ‘친환경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관광 요소에만 한정된 친환경이었다. 탄소배출량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처럼 실질적인 친환경이라기 보다, 녹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가까웠다.
- 지금의 체코는 프라하를 중심으로 에너지 혁신에 도전하고 있다. 프라하시는 2021년 5월 ‘2030 프라하 기후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프라하가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 진정한 친환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다. 궁극적으로는 2030년까지 프라하의 탄소배출량을 45%나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프라하시는 에너지, 건물, 운송,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의 5가지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크게 확대해 석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프라하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2만 3,000채의 건물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연간 2.3TWh의 발전량을 확보한다고 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한편, 프라하의 야경을 아름답게 수놓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로 했다.
- 교통의 중심지답게 운송 분야에서도 과감한 계획을 세웠다. 현재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의 중요한 한 축인 트램 교통망을

더욱 정비하는 한편, 프라하시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50%인 600대를 전기버스로, 25%인 300대는 프라하에서 생산된 재생 가능 연료를 사용하는 저공해 버스로 교체한다.

-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통합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할 일 자체를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프라하시의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를 하루 15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부담없이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프라하시의 변신은 향후 10년 동안 숨가쁘게 이어질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프라하시는 도시 환경과 주민생활 곳곳에서 친환경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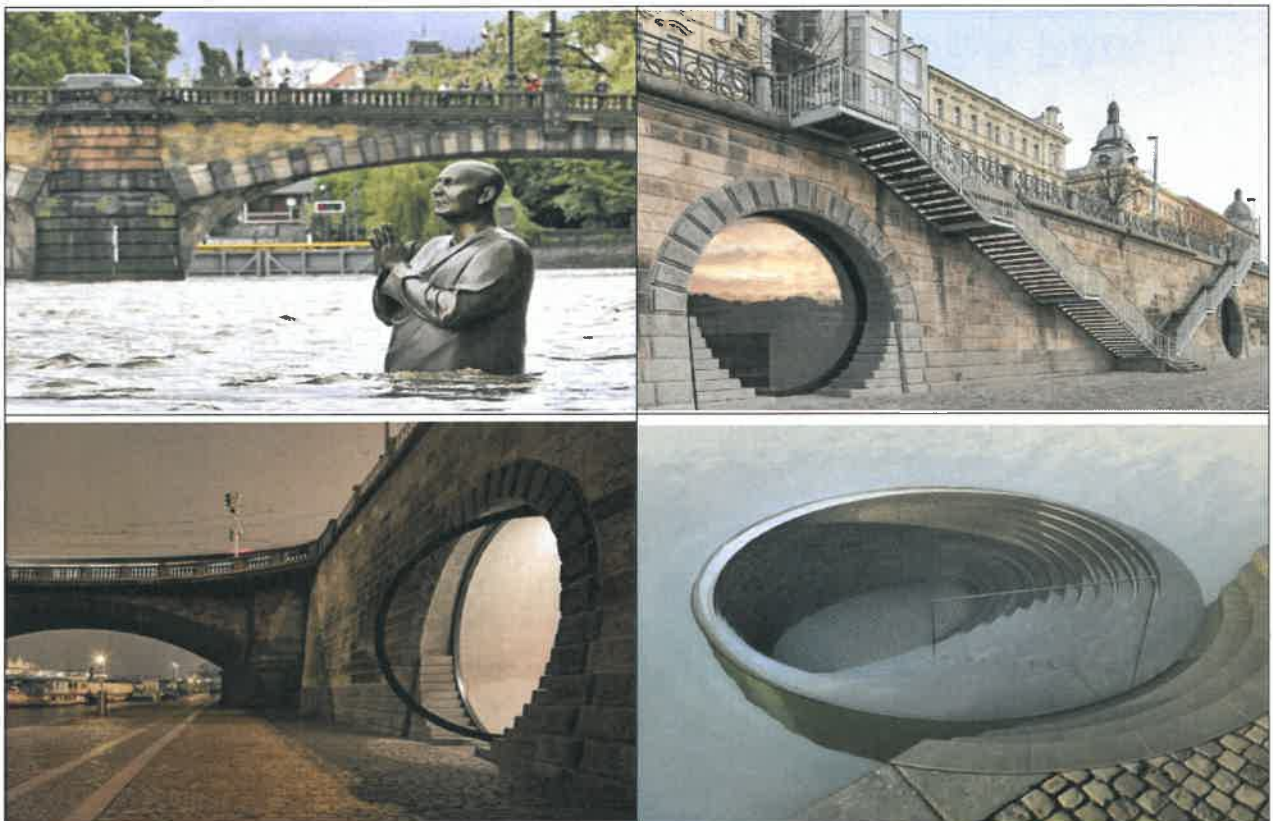


○ 프라하 아이즈 도시재생(강변 도시재생) 사례지 방문(2)

- 일 시 : 2023. 6. 24.(토)
- 소재지 : 체코, 프라하
- 면담대상 : 프라하시 도시계획과 과장 이트카 크베틀로바(Jitka Cvetlerová)
- 전학내용 : 도시재생 속 공간디자인 선진사례 전학
- 현 황
 - 프라하 시가 주도한 ‘프라하 아이즈 - 리버프론트 리바이탈리제이션 Prague Eyes - Riverfront Revitalisation’ 을 통해 건축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의 특별함을 살펴본다.
 - 도시가 간직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문화복합공간을 위해 프라하시에서 주목한 것은 바로 건축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이다. 강변 지역의 활성화 프로젝트인 ‘프라하 아이즈-리버프론트 리바이탈리제이션’ 는 북적이는 관광지를 벗어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디자인됐다.
 - 2002년 발생한 대홍수 이후 방치됐던 제방을 트렌디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소생시킨 이번 프로젝트는 체코의 건축디자이너 페트르 잔다의 건축스튜디오 페트로잔다/브레인워크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됐다.
 - 기존 20개의 제방 창고를 새로운 기능을 더한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한 프라하 아이즈는 총 3개의 구역에 4km에 달하는 제방길을 따라 자리 잡고 있다.
 - 라진구역에 위치한 6개의 창고는 미니멀한 감각의 현대적이면서도 기능성을 높인 리테일공간으로 변신했다. 외부 공간과의 연결성과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대형 유리 유리로 디자인된 전면 문은 특정

위치에 사람이 다가올 경우 60° 각도로 열리는 자동 센서형 도어를 사용해 미적 완성도를 높였다. 홍수가 날 경우를 대비해 문은 제방 안쪽에 설치했으며, 유사시 최대 1,600mm 높이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방지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

- 제방의 옛 모습을 연상시키는 호제이시 구역에 위치한 14개의 창고는 강철로 만들어진 문 안쪽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변신 가능한 리테일 공간과 공공화장실을 더했다.
- 새롭게 디자인된 공공화장실은 긴 줄이 늘어섰던 기존 화장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적 솔루션이 인상적이다. 화장실 수를 늘리기 위해 나선형 캐빈으로 디자인했으며, 캐빈 내부의 세면대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컴팩트한 구조로 완성됐다.
- 프라하의 대표 상업지구이지만 관광지와 조금 떨어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았던 이곳은 트렌디한 감각의 레스토랑과 펍, 카페 등이 입점하여 지역에 생기를 되찾아주고 있다.



< 독 일 >

○ 하이델베르크 친환경 패시브하우스 주택마을

- 일 시 : 2023. 6. 26.(월)
- 소 재 지 : 체코, 프라하
- 면담대상 : 하이델베르크 패시브하우스 협회 담당자 Dr. Berthold Kaufmann
- 전학내용 : 도시재생 속 공간디자인 선진사례 전학
- 현 황
 - 독일의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는 인구 16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1386년에 창설된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아름다운 고성(古城), 네카르 강(Neckar)이 흐르는 도시로도 유명하다.
 - 하이델베르크는 교통이 잘 정비된 도시다. 도심 구석구석까지 트램과 버스 노선이 마련되어 있으며, 도시의 문화와 정취를 제대로 느끼기 위한 자전거 시스템도 구성되어 있다. 자전거는 대여소를 통하거나 어플을 통해 쉽게 대여할 수 있으며 하이델베르크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도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다. 기차는 물론 버스와 트램에 자전거를 싣고 타는 것에 대한 요금 및 규정을 자세히 명시해놓았으며, 자전거 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표시도 도로 곳곳에 표기되어 있어 편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다.
 - 오래된 성을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매력적인 하이델베르크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첨단 기술이 도시 전체에 녹아 들어있다는 점이다. 하이델베르크는 ‘유엔 지속가능 발전 도시상’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환경상을 타며 최첨단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하이델베르크는 1994년부터 가정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 기업 사업장, 학교, 관공서 등 시 곳곳의 건물과 시설에서 소비되는 자원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전기, 열에너지, 물 등의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분석해서 자료로 만들면,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에너지를 절감해서 생긴 여유 자금은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데 사용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 시립동물원처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오물을 발효시켜 얻은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시에 공급하기도 했다.
- 반슈타트(bahnstadt) 프로젝트도 하이델베르크의 자랑이다. 하이델베르크 역에서 남동쪽으로 1.8km를 가면 친환경 주거 단지인 반슈타트가 나온다. 군부대와 버려진 야적장이었던 108.6만m² 부지에 건설한 친환경 반슈타트는 6,000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상업 구역도 함께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슈타트의 모든 건물은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표준’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
- 고밀도 단열재를 사용하여 밖으로 새는 에너지를 막고 모든 주택은 태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패시브 하우스가 되기 위한 기준은 연간 m² 당 전력 소비량이 최대 15kWh 정도로

기존 독일 건물 평균 에너지 소요의 10%에 불과하다.

- 반슈타트 친환경 단지의 최종 목적은 여름과 겨울 집안에서 냉난방기기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와 발코니 구조를 분리하였고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었다.
- 하이델베르크 곳곳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이델베르크시 공무원과 시민들, 전문가가 함께 회의체를 조직하여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 빗물이 하수도가 아닌 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수관을 정비하고, 우수 및 중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수로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환경 수도(首都)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독일연방 국제정원박람회(BUGA 2023)

- 일 시 : 2023. 6. 26.(월)
- 소재지 : 독일, 만하임
- 면담대상 : 만하임 관광정보부서(Tourismus Stadt Mannheim GmbH)
BUGA 2023 투어 가이드 담당자
- 견학내용 : 3대 정원박람회 중 하나인 200여년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정원박람회 선진사례 견학
- 현 황
 - 독일에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박람회로서 <정원, 조경>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분야를 총 망라한다. 일반적으로 부가BUGA라고 줄여서 부른다. 실제로 공원이나 정원을 조성하여 보여주며 박람회가 끝난 뒤에는 개최 장소가 시민공원으로 남는 것이 특징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환경보호, 기후보호가 테마로 수용되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 도시 별로 돌아가며 개최하는데 10년마다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격이 부여된다. 이와 병행하여 각 연방주에서 별도로 개최하는 국가정원박람회 Landesgartenschau LGS, LAGA가 따로 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해마다 여러 개의 정원박람회가 열린다.
 - 독일연방정원박람회는 1865년에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유럽 최대 규모의 가든 박람회로 자리 잡았으며, 대규모 정원 디자인, 식물 종류 및 조경술 등에 관한 정보 및 제품들이 전시 및 판매한다.
 - 현재까지 최고의 실적을 올렸던 정원박람회는 1983년 뮌헨 국제 정원박람회로서 총 관람객 수 천 백 오십만 명에 도달했다. 즉 일간 평균 25만명이 방문한 셈이다. 2위가 1975년 만하임으로서 총 8,710만명, 3위가 1993년 슈투트가르트로서 총 730만명의 방문객 수를 자랑했다.
 - 이번 2023 독일연방정원박람회는 도시 정원의 생명력과 중심지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다양한 도시 정원과 그들이 지역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도시에서의 생활과

문화, 교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도 다룬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 정원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도 전시되며, 도시 환경에서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될 예정이다.

※ 최근 역대 연방정원박람회

연도	도시	개최 장소(공원)
2011	코블렌츠 Koblenz	3개 구간. 도이체스 엡크 주변의 화원, 궁전, 성곽 Drei Kernbereiche: Blumenhof am Deutschen Eck, Kurfürstliches Schloss und Festung Ehrenbreitstein
2013(IGS)	함부르크 Hamburg	엘베강 섬 빌헬름스부르크 Elbinsel Wilhelmsburg
2015	하펠 지역 연합 Havel-Region	하펠강 유역
2017(IGA)	베를린 Berlin	세계의 정원, 볼레 골짜기 일부 Gärten der Welt, Teile des Wuhletales
2019	하일브론 Heilbronn	네카보겐 Neckarbogen
2021	에르푸르트 Erfurt	에가파크, 페터스베르크, 게라아우엔 egapark, Petersberg, Gera-Auen
2023	만하임 Mannheim	구 군사시설 "슈피넬리 바라크" Konversionsgelände „Spinelli Barracks“, Feudenheimer Au



○ 프랑크푸르트 뢰머광장

■ 일 시 : 2023. 6. 27.(화)

■ 소 재 지 : 독일, 프랑크푸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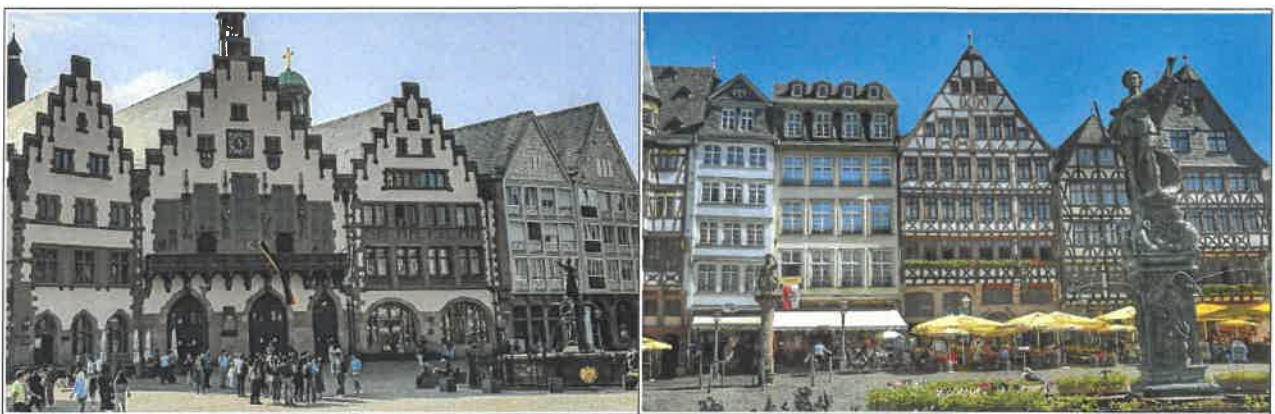
■ 견학내용 : 광장 조성과 문화 및 광장 주변의 상업지역 활성화 선진 사례 견학

■ 현 황

- 유럽의 도시에는 보통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광장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로마의 스페인 광장, 뮌헨의 마리엔 광장,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광장 등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뢰머 광장이 그러하다. 뢰머 광장에는 1405년부터 장장 600년 동안 프랑크푸르트의 시청인 뢰머가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최초의 은행이 있었던 자리 역시 뢰머 광장이었다.
- 뢰머 광장(Römerberg)은 프랑크푸르트 구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광장이다. 옛 시청사 건물인 뢰머(Römerberg)와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대관식이 열렸던 대성당 사이에 조성되어 있다.
- 뢰머는 프랑크푸르트의 옛 시청사로 뢰머 광장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이었다. 신성로마제국 황제 대관식이 끝난 후 화려한 축하연을 베풀었던 장소이며, 르네상스 시대인 1405년부터 시청사로 사용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한 것이라 한다. 웅장하면서 화려한 석조건축물로 지어진 다른 도시의 시청사와는 달리 지방 특유의 전통적인 목조건축물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뢰머는 광장의 다른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지붕이

심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붕들은 눈이 많은 지방에서 눈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구조로, 이곳이 알프스와 가까운 지리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프랑크푸르트의 뢰머 광장은 프랑크푸르트 시청(Römer)을 비롯해, 불가리아 교회(St. Nikolai-Kirche), 로마 시대의 공화국 광장(Römerkastell) 등 다양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시청은 프랑크푸르트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이며, 외관은 중세 유럽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다.
- 이 광장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시장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매우 유명하다.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면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어 주변의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독일인들도 뢰머광장에 한번쯤 방문하는 것을 선호한다.



○ 비스바덴 중앙 하수처리장

- 일 시 : 2023. 6. 27.(화)
- 소 재 지 : 독일, 비스바덴
- 면담대상 : 비스바덴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KLAERWERK BIEBRICH 홍보팀
- 견학내용 : 하수 처리의 해외 선진사례 견학(하수 슬러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 사례)
- 현 황
 - 비스바덴시의 19만 주민의 하수를 처리하는 곳으로 약 800km의 하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97%는 가정용 하수로 일부 공장용 폐수와 우수 등이 혼합되어 유입된다.
 - 1873 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있었던 곳으로 하루 2,500톤을 처리하며 우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탱크로리 차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한다.
 - 고정층 기술을 이용한 생물학적 폐수 처리 시스템 설치 운영 중이며 생물학적 처리는 탈질(BIOPUR-DNK), 질산화 (BIOPUR-NK) 및 여과 탈질을 위한 3단계 고정층 반응기를 사용한다.
 - 처리과정에서 바이오 필터 등을 사용하여 배기가스를 정화하고 있으며, 모듈형 설계로 높은 작동 신뢰성을 확보한다. 하수는 침전과정을 거친 후 소화조에서 8천톤^m의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력 생산 하여 66%정도는 자체 전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판매한다.
 - 처리된 하수는 라인강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으며 수질은 독일의 기준에 맞추어 처리되고 있다.

- 하수처리시설이 비스바덴시 거주단지 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냄새 등을 저감한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 사업시행은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시설을 운영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BTO방식을 채택하여 민간 업체인 ELW회사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운영하고 있다.

